

小農經濟理論의 새로운 展開

—N. Georgescu-Roegen 과 V.M. Dandekar 의 所論을 중심으로—

鄭 英 一

<目 次>

I. 序
II. Georgescu-Roegen 小農經濟理論의 背景
III. Georgescu-Roegen 의 過剩人口分析과 小農經濟理論을 위한 基礎의 定立
IV. Georgescu-Roegen 의 結論
V. Dandekar 의 問題提起
VI. Dandekar 의 Georgescu-Roegen 에 대한 批判的 展開
VII. 結語

I. 序

封建制가 解體되면서 封建的 秩序아래 抑壓되어왔던 隸農의 小經營은 자유로운 小生產 農民으로서의 成立을 보게 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資本主義의 發展에 따라 資本制의 農業으로 再編되어가는 것이지만, 資本主義의 發展에 있어 落後된 低開發諸國에 있어서의 農業은 아직도 家族勞動을 中心으로 하며 낮은 技術水準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小農의 廣汎한 存在를 特徵으로 한다. 특히 過剩人口狀態아래 놓여있는 後進國의 경우에 있어서 人口의 대부분을 占하는 이들 小農部門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經濟發展에 있어서 支配的인 比重을 갖는 문제로 된다.

過剩人口經濟下의 小農을 理論的으로 어떻게 把握하고 政策的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前世紀의 末葉부터 今世紀의 初에 걸쳐 東歐를 中心으로 하여 重要한 論議가 계속되어왔으며 이 過程에서 이른바 小農主義(Agrarianism)의 擡頭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 時期에 있어서의 小農主義者(Agrarian)들은 小農經濟에 대한 充分한 理論的인 展開에 成功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經濟發展이 落後된 諸國은 兩次大戰을 거쳐 그들의 自立的 發展을 위한 基盤을 定立해가는 過程에서 거의 共通的으로 封建的 土地所有를 廢止하는 制度的 措置로서 農地改

革을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자유로운 小農을 창설하여 왔다. 그러나 農地改革의 經濟的意義 또는 農地改革의 後進國經濟發展에 대한 寄與에 대한 올바른 評價 또는 農地改革을 통하여 創設된 小農의 經濟行爲에 대한 理論的 把握등은 相對的으로 輕視된채 그 平等主義的 側面만이 表面에 露出되어왔다. 이러한 理論的 空白을 메우기 위한 論議는 低開發國의 經濟發展을 위해 必要不可缺한 要請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本稿는 이러한 視角에서 小農의 經濟行爲에 대한 理論的 理解와 過剩人口國의 經濟發展을 위한 小農의 組織化를 둘러싼 政策的 論議를 理解하고자 하는 素朴한 目的을 지닌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룬 獨創的 業績으로 보아지는 N. Georgescu-Roegen, "Economic Theory and Agrarian Economics," *Oxford Economic Papers*, Feb. 1960 와 Georgescu-Roegen의 論議를 批判的으로 發展시키고 있는 V.M. Dandekar, "Economic Theory and Agrarian Reform," *Oxford Economic Papers*, Feb. 1962 의 두개의 論文을 차례로 다룬다.

本稿에서는 먼저 Georgescu-Roegen의 小農經濟理論의 背景을 그의 敘述에 따라 살펴보고 그의 分析의 出發點을 이루는 低開發小農經濟에 있어서의 過剩人口의 分析을 다룬 다음 그의 重要한 結論을 整理 導出한다. 그리고 Georgescu-Roegen의 이른바 "資本主義도 社會主義도 아닌 二重의 否定"이라는 小農理論을 吟味하는데 論議의 실마리를 두고 있는 Dandekar의 問題提起를 檢討해 본후 Georgescu-Roegen의 結論을 批判的으로 發展시킨 끝에 Georgescu-Roegen 과는 다른 結論을 導出하게된 Dandekar의 論議의 歸結을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東歐의 經驗을 土臺로 하여 形成된 Georgescu-Roegen의 所論과 印度의 경우를 念頭에 두면서 展開된 Dandekar의 所論을 比較 檢討하면서 우리가 處해있는 狀況에서 이들 두 理論이 어떠한 意味를 지니며 어떠한 示唆를 던져줄 수 있을까 하는 問題를 吟味해 보코자 한다.

II. Georgescu-Roegen 小農經濟理論의 背景

Georgescu-Roegen은 世界人口중 13億이상이 아직도 自給自足經濟속에서 小農(peasant)으로 머물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饑餓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嚴然한 歷史的 現實을 強調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農業經濟學(agricultural economics)이 아니라 過剩人口를 지닌 農業經濟의 經濟學 이른바 小農經濟學(agrarian economics)은 매우 不幸한 歷史를 지녀왔다"고 지적하고 있다.⁽¹⁾ 왜냐하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經濟學의 主要

(1) Nicholas Georgescu-Roegen, "Economic Theory and Agrarian Economics," in *Analytical Economics, Issues and Problem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p. 359.

한 潮流는 小農經濟問題를 關心밖에 두었거나 그것에 대한 올바른 理論構成에 失敗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古典學派經濟學者들은 非資本制的 經濟에 대해서는 無關心이었으며, 「마르크스」主義經濟理論은 小農經濟의 諸法則에 관한 先入見때문에 문제를 올바로 다루지 못하였으며, 最近의 新古典學派 및 一般均衡論者등 標準經濟學者(Standard economist)⁽²⁾들은 經濟發展이 不安定한 國際政治와 聯關을 갖게됨에 따라 受動的으로 低開發經濟 내지 非資本制的 經濟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으나 接近方法에 있어서는 「마르크스」主義와 같은 誤謬를 범해왔다는 것이다. 그밖에 그리 알려져있지 않은 學派인 小農主義者들에 의하여 小農經濟의 研究가 試圖되었으나 그들은 量的 理論的 分析을 冷笑함으로써 그들 特有의 研究對象에 관한 適切한 理論構成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小農經濟를 “理論없는 現實”(reality without theory)로 규정하면서 小農的 過剩人口國의 健全한 經濟政策을 위한 새로운 理論構成을 위한 準備段階로서 過剩人口의 農業經濟와 先進經濟를 준비하는 基本的인 特徵을 지적하는데에 그의 論議의 目標을 設定하고 있다.

이러한 問題提起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Georgescu-Roegen은 既存理論들은 資本主義經濟를 說明하려는 것이어서 小農經濟에 대해서는 適用性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自然科學에 있어서는 그 研究對象이 때에 따라 다른 作用을 한다고 확신할 만한 아무런 證據가 존재하지 않지만 社會科學의 對象이 되는 人間社會는 時間과 空間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人間社會의 差異는 하나의 原型의 서로 다른 경우일 뿐 모든 社會現象은 單一의 理論에 의하여 包括될 수 있다는 見解는 아무런 適用價値도 갖지 못하는 一般性的 集合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經濟理論이 政策指針으로 쓰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동시에 몇가지 類型이 아니라 特定한 하나의 經濟的類型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³⁾

標準理論(standard theory)은 企業家가 現金利潤(cash-profit)의 極大化를 追求하며 모든 商品은 均一한 價格으로 市場에서만 交換되며 個人이 嚴格히 快樂主義的으로만 행동하는 社會의 經濟的 過程을 敘述하며, 「마르크스」主義理論은 生産手段의 階級的獨占, 돈벌이하는 企業家들, 모든 商品價格이 均一한 市場, 人口的 要因과 經濟的 要因간의 完全한 別個性을 特徵으로 하는 經濟를 說明하는 것이므로, 標準理論과 「마르크스」主義理論은 資本主義經濟體制를 설명하기 위한 理論이라는 것이다.

(2) Georgescu-Roegen은 新古典學派 또는 一般均衡論者등 어느 한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기에 불충분한 近代經濟學派學者들을 總稱하여 標準經濟學者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3) Georgescu-Roegen, *op. cit.*, p. 361.

또 어떤 經濟體制를 특징지우는 것은 制度이지 사용되는 技術이 아니며 標準理論 및 「마르크스」主義理論은 文化的 또는 制度的 特性에 그 理論的 基礎를 두고 있기 때문에, 標準理論이나 「마르크스」主義理論은 非資本主義的 經濟 즉 部分的 또는 全般的으로 資本主義的 諸制度를 缺如하고 있는 經濟의 分析을 위해서는 妥當하지 못할 것임이 明白하다. 따라서 標準理論 및 「마르크스」主義理論은 지금까지 展開되어온 經濟理論중에서 가장 精巧한 것임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들이 당면한 모든 經濟現實에 대한 올바른 問題提起 및 妥當한 要因의 追求를 위한 有用한 類型을 마련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全世界人口중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小農經濟가 왜 “理論 없는 現實”에 머물고 있는가에 관해 Georgescu-Roegen 는 다음과 같은 理由를 들고 있다.⁽⁵⁾ 첫째로 學問의 性格上 經濟學者들은 다른 學問分野의 學者들보다도 그들의 社會的 環境에 敏感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그들의 關心은 當代의 經濟問題에 集中되어 왔으며, 經濟學이 순전히 記述的인 段階로부터 理論的인 段階로의 發展을 이룩한 것은 西歐에서 封建制가 資本主義로 移行하는 時期와 一致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資本主義가 初期 理論經濟學者들의 對象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보다 중요한 理由로는 한 社會의 基本的인 文化的 特性에 관한 直觀的 知識은 그 社會의 經濟理論을 定立함에 있어 不可缺한 것이지만, 人間이 自身이 속하고 있는 社會이외의 다른 社會의 文化的 土臺를 理解하기는 매우 困難하다는 점이다. 都市를 活動의 本據地로 삼는 近代의 科學者는 都市에 살면서 小農社會의 生活를 觀察하거나 理解하기가 거의 不可能했을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나 다른 西歐經濟學者들의 눈에 小農은 “신비스럽고 奇妙하며 때로는 걱정스러운 存在”로 미친 것은 당연한 일로 된다. 결국 「마르크스」는 小農을 觀察할 機會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龍大한 學問的 活動중에 그가 非資本主義的 農業을 研究했음을 暗示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며 그의 地代에 관한 分析은 전적으로 資本主義的 生産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小農經濟를 理論 없는 現實로 규정한 Georgescu-Roegen 은 「마르크스」主義農業理論의 虛構性을 다음과 같이 批判하고 있다.⁽⁶⁾ 그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가장 重大한 誤謬는 農業과 工業이 다른 法則에 의하여 規制된다는 간단한 事實을 認識하지 못함으로써 集中的 法則이 工業에서와 마찬가지로 農業에서도 適用된다고 主張했다는 것이다. 즉 農業生産과

(4) *Ibid.*, p. 362.

(5) *Ibid.*, pp. 362-3.

(6) *Ibid.*, pp. 363-4.

工業生産의 規模의 法則사이에는 아무런 並行性이 없으며, 두 部門間에는 時間要素의 役割이 달라 農業生産에 있어서의 懷妊期間이나 植物의 成長期間은 工業生産에 있어서와 같이 機械的 操作을 통해서 變更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部門間에는 收穫遞減法則에 관련된 差異가 있기 때문에 將來의 諸發見이 生命을 活力없는 物質로 還元시킬런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農業과 工業이 다른 法則에 따른다는 것이다. 歷史上 19世紀의 後半期동안 農業에 있어서 集中은 계속 줄어들어는 반면 小農은 無產化하기는 커녕 더 많은 數가 土地所有者로 되어왔다는 것이 많은 센서스의 결과 나타났으며 이러한 現象이 아무런 計劃的 干涉이 없는 資本主義諸國에서 일어났다는 事實은 Veblen으로 하여금 農業에 있어서의 集中化法則을 “「마르크스」主義의 가장 쓰라린 經驗”이라고 反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農業에 있어서의 集中化法則에 대한 그릇된 認識과 人間은 歷史過程을 加速化함으로써 苦痛加重의 期間을 短縮시킬 수 있다는 「마르크스」主義的 「헤겔」主義가 結付되어 社會主義者들은 小農을 無產化하여 社會主義의 到來를 促進하게 될 諸方策을 사용하라는 主張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그는 해석한다. 그러나 小農은 無產化를 원치 않기 때문에 社會主義政黨은 到處에서 小農大衆의 反對에 부딪쳤으며 이에 따른 選舉戰에 있어서의 失敗는 小農問題라는 이름의 黨內部的 危機를 일으켰으며 이 問題는 「마르크스」主義에 큰 危殆를 주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死後에도 社會主義政黨들은 小農문제를 隱蔽하려고 갖는 努力을 하여 한편으로는 그들은 小農을 破壞할 意圖가 없다는 「레닌」의 機會主義와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意味에서의 集中化의 存在를 實證하려는 「카우스키」流의 努力이 併行되었다고 본다. 그후 「스탈린」時代에 와서는 工業部門과 農業部門간의 相衡을 解決함에 있어 工業 및 官僚部門의 利益에 優先을 줌으로써 “값싼 빵”을 獲得하기 위하여 「레닌」이 말한 바 “農民의 全般的 集團化는 실로 都市에 대한 食糧供給을 確保하는 手段으로 된다”는 共產主義農民政策의 基本的 見解를 그대로 堅持해 나왔다고 그는 보고 있다.⁽⁷⁾

다음으로 Georgescu-Roegen은 이른바 小農主義가 擡頭된 背景과 그 理論의 不充分性에 대하여 論及한다.⁽⁸⁾ 이것을 그는 “理論없는 政策”(policy without theory)이란 含蓄性있는 語句로 表現하고 있다. 19世紀前半期에 있어 西歐諸國은 점차 많은 工業人口로 先占되어 간데 비하여 「러시아」는 전적으로 小農과 관련을 갖는 社會的 變動을 겪어가게 되었으며 이러한 經濟的 條件의 差異는 西歐에서와는 相異한 偏見을 가져다 줌으로써 이른바

(7) *Ibid.*, pp. 364-7.

(8) *Ibid.*, pp. 367-9.

Narodniki(또는 Populist)를 形成시켰다. 그후 「마르크스」主義가 「러시아」에서 基盤을 얻게 되자 「마르크스」主義理論과 「러시아」現實간의 兩立不可能性を 둘러싸고 「마르크스」主義와 Narodniki 간에는 熾烈하고도 持續的인 理論的 鬭爭이 계속되었다. 그 過程에서 Narodniki 들중의 상당수는 「마르크스」主義에 이끌리게 되었지만 小農經濟의 特殊性을 「마르크스」主義의 體系속에 適合시키기는 不可能하였기 때문에 Narodniki 의 대부분은 小農經濟의 特殊性을 否定하는 것을 拒否함으로써 資本主義도 社會主義도 아니라는 이른바 二重의 否定에 입각한 小農主義의 理念을 形成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Narodniki 는 後日의 小農經濟學者들과 마찬가지로 小農의 現實에 대한 直觀的인 接近과 小農의 世界觀에 대한 理解에만 依存했을 뿐 分析的 關心을 缺如하고 있었으므로 小農經濟의 理論構成에 失敗하였으며 浪漫主義라는 非難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Georgescu-Roegen 은 「러시아」 小農理論家중 가장 評價받아야 할 A. Tschajanov 가 “우리는 아직도 小農의 經濟行爲에 관한 理論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솔직한 告白을 引用하면서, 小農에 관한 理論形成의 困難性에 관한 가장 큰 理由를 小農의 經濟行爲의 定式化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있을 것이라고 言及하고 있다.⁽⁹⁾

小農經濟에 관한 既存理論의 不適合性を 理論의 背景으로 하고 過剩人口에 대한 再吟味를 실마리로 삼아 그는 새로운 小農經濟理論의 構成을 試圖하고 있다.

III. Georgescu-Roegen 의 過剩人口分析과 小農經濟理論을 위한 基礎의 定立

Georgescu-Roegen 은 지금까지의 小農經濟理論家들의 過剩人口概念에 관한 吟味를 통하여 새로운 小農經濟理論의 定立을 위한 理論的 出發點을 摸索하고 있다. 그는 Tschajanov 의 例를 들면서 종래의 小農理論家들은 대부분의 低開發小農經濟의 疫病을 過剩人口문제로 診斷하고 小農經濟의 문제를 바로 人口문제로 意識해왔다고 指摘하면서, 이러한 過剩人口의 分析이 小農문제의 解決에 主役을 擔當할 수 있을지의 與否를 檢討하는데서 부터 그의 論議의 出發點을 設定하고 있다.⁽¹⁰⁾

論理的으로 보아 “過度”(excess)라는 말을 할때는 그것이 適正狀態가 아니라면 어떤 方式으로든지 “正常”(normal)을 表現하는 基準에 비추어 그것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基準이 되는 “正常” 내지 “適正”을 규정하는 것은 그리 容易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보통 正常(또는 適正)人口라는 말은 正常(또는 適正)生活이라는 概念을 意味한다.

(9) *Ibid.*, p. 369.

(10) *Ibid.*, p. 369.

이때 설사 어떤 時點에 있어서의 正常(또는 適正)生活을 捕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時間과 空間에 대하여 妥當한 “正常”을 택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며 어떤 人口든 그것이 살고 있는 時空에서는 “正常”이라는 無用의 結論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正常”에 대한 어떤 理論的인 基準을 採擇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農業國의 過剩人口의 存在를 把握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흔히 人口 1人當穀物收穫量이라는 基準이 채택되어 왔다. 穀物收穫量의 基準이 相對的 過剩人口에 관한 粗雜한 概念을 부여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定義된 相對的 過剩人口의 概念은 매우 曖昧하며 그 測定節次에도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두 經濟간의 差異를 1人當國民生産의 格差와 對等視하게 됨으로써 分析의 方向을 歪曲시킬 우려를 낳는다는 점에서 올바른 基準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理論的인 次元에서 보면 이러한 接近方式은 小農經濟와 資本主義經濟간의 差異를 本質문제로서가 아니라 程度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見解에 입각하고 있음이 明白하다. (11)

그런데 1930年代에 많은 小農을 擁한 數個國에서 시작된 몇몇 研究의 結果, (12) 이들 諸國의 人口중 相當한 部分은 아무런 國民生産의 減少를 가져오지 없이 除外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同一한 對象에 관한 別個의 推計결과가 매우 비슷한 數値를 나타냄으로써 小農諸國에 있어서의 過剩人口現象은 하나의 客觀的인 量的 現象으로 다루어 질 수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歷史上的 經驗에서도 1914년에 戰爭이 시작된 이래 2年 동안에 걸쳐 일할 수 있는 男子의 40%이상이 軍隊에 갔음에도 「러시아」의 農業生産은 戰前水準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同一한 現象은 2次大戰중의 「루마니아」에서도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兩次世界大戰의 期間中 東歐의 農業生産이 크게 줄어들었을 때 그 原因은 언제나 極甚한 力畜의 徵發이나 낡은 器具代替의 困難性 또는 軍隊移動에서 빚어진 混亂에 있었던 것이며, 이른바 kulak 清算때의 數千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小農의 消滅조차도 經濟全般에 急激한 攪亂을 가져왔으면서도 農業生産에는 극히 短期間에 걸친 影響만을 주는데 그쳤다는 歷史的인 事實들을 提示하고 있다.

이러한 理論的 研究와 歷史的인 例證을 引用하면서 小農經濟에 있어서의 過剩人口의 存在를 是認한 Georgescu-Roegen은 過剩人口의 概念이 小農經濟理論의 出發點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층 嚴密한 分析을 展開하고 있다. 그는 가령 많은 人口가 消滅된다고 하더라도

(11) *Ibid.*, p. 370.

(12) 「루마니아」의 農村過剩人口에 관하여 政府의 統計資料를 사용한 研究는 그 比率를 48%로, 無作爲抽出法에 의한 60個村落의 實查를 통하여 관찰된 V. Madgearu의 研究는 그 比率를 45%로, 그리고 政府資料를 사용한 W.E. Moor는 그것을 51.4%로 各各 推計하고 있다. *Ibid.*, p. 371.

만일 사람들이 餘暇를 덜 택하려고만 한다면 美國의 國民生産은 쉽사리 종전과 같은 水準을 維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指摘하면서 生産量을 減少시킴이 없이 人口의 一部가 除去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過剩人口를 理論적으로 특징지우는데 充分치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과 같은 先進經濟의 경우와 小農的 過剩人口의 경우간의 差異는, 前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일 사람들이 餘暇를 덜 택하려고만 한다면 國民生産은 增加될 수 있는 반면 後者の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0인 狀態가 過剩人口의 定義를 摸索하는 出發點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13) 실제 「라틴 아메리카」諸國과 같은 過少人口國을 除外한 低開發經濟에 있어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0인 나라들이 많이 存在한다는 小農經濟學者들의 觀察을 想起시키고 있다.

또 그는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0이라는 過剩人口의 概念을 한층 明白히 하기 위하여 勞動의 限界生産力을 생각함에 있어 勞動과 資本을 混同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4) 이른바 過剩人口經濟에서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0이라면 그러한 經濟에서 熟練勞動을 한층 더 必要로 하고 있다는 逆說的 現象을 어떻게 說明해야 할까 하는 있을법한 反問에 대하여, 그는 問題를 이런 式으로 보는 것은 勞動과 資本을 混同한 結果이라고 自答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部門의 技術者의 限界生産力은 그의 勞動의 限界生産力뿐만 아니라 그의 訓練에 投下된 資本의 限界生産力을 동시에 意味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0이라는 것은 熟練勞動의 限界生産力은 熟練시키는데 投下된 資本의 限界生産力으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過剩人口의 經濟에 있어서는 非過剩人口의 經濟에 있어서보다 한층 더 熟練勞動의 不足을 느끼며 非熟練勞動者는 대부분의 時間을 빈둥빈둥 지나는 반면 熟練勞動者의 勞動負擔이 한층 過重하다는 過剩人口經濟의 一般的 特徵은, 바로 過剩人口經濟에 있어서의 資本不足을 意味하는 것이지 勞動不足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經濟에 있어서의 勞動의 限界生産力은 非熟練勞動의 限界生産力을 뜻하는 것이며, 貧困國에서는 보통 農業勞動이 非熟練勞動과 사실상 一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나라의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0이라고 한다면 農業勞動의 限界生産力이 바로 그러한 것이며, 이러한 關係는 過剩人口國의 小農經濟理論의 定立에 있어 커다란 示唆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13) *Ibid.*, 371-2.

(14) *Ibid.*, pp. 372-4.

IV. Georgescu-Roegen 의 結論

過剩人口의 分析을 土臺로 하여 展開된 理論的 基礎위에서 Georgescu-Roegen 은 그의 小農經濟理論構成의 前提로서의 小農經濟와 先進經濟간의 基本的인 差異를 兩經濟가 지니는 “餘暇”의 本質的 差異라는 개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長期에 있어 餘暇는 하나의 經濟的인 最高善이기 때문에 人間은 언제나 勞動節約的 諸方案을 摸索하려고 꾸준히 애써왔으며 그 과정이 바로 技術的 進歩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短期에 있어서 餘暇는 經濟的으로 所望스럽지 않은 것으로 될 수도 있는 바,”⁽¹⁵⁾ 바로 過剩人口經濟에 있어서 先進國經濟에 있어서보다 많은 餘暇를 누리는 것은 過剩人口國사람들의 餘暇는 先進國의 경우에서와 같이 餘暇와 實質所得간의 選擇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地理・歷史的 條件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賦與된 것이라는 점에 注意를 喚起시키고 있다. 이러한 性質을 지닌 過剩人口經濟에 있어서의 餘暇는 無爲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餘暇를 經濟的善이라고 부르는 것은 適切하지 못한 일이며 그 價値는 0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Simon Kuznets 는 國民所得에서 餘暇를 제외한다면 技術進歩의 중요한 效果가 흐려질 것이라고 指摘한 바 있으며 이러한 所論은 매우 正當한 것이라고 言及하고 있다. 그러나 先進經濟와 過剩人口經濟에 있어서의 餘暇가 지니는 바 經濟的 意味의 差異를 勘案한다면 각 경우에 있어서의 適切한 國民所得의 定義는 달라져야 할 것이며 過剩人口國의 經濟發展은 1人當純生産의 增加로서 규정되는 것이 適切한 일이라고 그는 보고 있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過剩人口經濟에 대한 批評家들은 能率的인 經濟는 生産要素에 대해 그 限界生産力이상의 報酬를 支給해서는 안된다는 原理에서, 技術的으로 한 사람이면 될 수 있는 일에 여러 사람이 매달리고 있는 過剩人口經濟의 現象에 대하여 非能率的이라는 批判을 加하고 있지만 그 主張은 先進經濟에서만 妥當한 法則을 過剩人口經濟에까지 擴大適用시킨 結果라는 것이다. 즉 過剩人口經濟에서 利潤極大化를 위하여 生産要素에 대하여 그 限界生産力만큼의 報酬를 支給한다는 基準에 따라 生産을 調節한다면 그것은 國民生産을 줄이는 한편 所望스럽지 않은 餘暇를 늘릴 것이기 때문에 過剩人口經濟아래서 資本主義는 農民의 地位를 惡化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게 될 것이다. 西歐資本主義에 비해 落後되었

(15) *Ibid.*, p. 387.

(16) *Ibid.*, p. 388.

던 東歐諸國에 特有한 이러한 事情이 小農의 理念(Agrarian ideology)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던 原因이며, 西歐는 그들의 經濟發展過程에서 이러한 經驗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小農의 理念은 하나의 地域的 哲學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극히 最近에 와서야 西歐의 經濟學者들은 그들 자신의 文化 및 條件에 적합하지 않은 外國類型的 影響을 받았던 小農主義者들의 見解를 納得하게 되었다고 Georgescu-Roegen 은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종래의 小農理論의 주된 特質을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要約하고 있다.⁽¹⁷⁾ 첫째 어떤 社會는 그들의 地理的 位置때문에 언제나 주된 經濟活動을 農業에 依存할 것이며, 農業은 원래 工業과는 性質이 다른 活動이기 때문에 그러한 社會는 工業經濟와 같은 途程으로 發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農業에 過剩人口를 지닌 나라에 대해서는 個別農民保有制度和 小手工業이 最善의 經濟政策을 이룬다는 것이다.

Georgescu-Roegen 은 農業에 있어서의 集中化法則의 誤謬가 歷史적으로 證明되었다는 점, 農業活動과 工業活動간에는 特徵的 差異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덴마크」와 「스위스」, 獨逸과 「오오스트리아」의 一部地域의 經濟發展過程에서 農業이 經濟發展의 基礎를 마련해줄 수 있었다는 事實등을 들면서 적어도 過剩人口를 지닌 農業國에 대해서는 무슨 犧牲을 무릅쓰고라도 工業化하라는 것은 經濟的知慧있는 말로 될 수 없다고 斷言하면서 小農主義理論의 첫째 特質에 대해서는 全的인 贊意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小農主義理論의 둘째 論點은 生産에 있어 보다 많은 勞動을 投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技術水準아래서도 適正厚生을 얻을 수 있는 經濟形態는 모든 地理・歷史的 條件아래서 同一하지 않다는 것을 直觀적으로 認識한 結果라고 높이 評價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經濟理論家들이 資本主義 또는 統制된 社會主義가 低開發經濟의 發展을 위해 가장 훌륭한 命題임을 主張한 것은 適正厚生을 목적으로 하는 限 限界生産力原理는 先進經濟를 前提로 한다는 하나의 重要的 制約을 認識하지 못한 데서 오는 結果라고 批判하면서 이러한 主張은 적어도 過剩人口經濟에 대해서는 잘못이며, 따라서 小農主義者들의 資本主義도 社會主義도 아니라는 이른바 “二重의 否定”은 놀랄만큼 올바른 直觀이었다고 보고 있다.

Georgescu-Roegen 은 小農主義의 特質에 관한 規定은, 종래의 小農主義者들 자신에 의하여 完成된 理論體系가 確立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事後的 合理化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理論模型에 대하여 그릇 해석이 될런지도 모른다는 但書を 붙이면서,

(17) *Ibid.*, pp. 391-2.

자기가 이해하는 限에 있어서는 小農主義의 模型은 “하나의 새로운 形態에 있어서의 封建의 方式(feudal formula)”이라고 結論짓고 있다.⁽¹⁸⁾ 그리고 歷史的으로 볼 때 未成熟한 采로의 封建의 方式의 衰退의 結果는 一次大戰以前의 100年期間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相對의 地位가 惡化되어온 「러시아」 및 「루마니아」農民의 경우에서 잘 볼 수 있으며, 그 反證例로는 유명한 封建制의 保疊였던 「헝가리」가 過剩人口가 彌漫한 隣國들에 비하여 農民의 地位가 한층 높았으며 모든 分野에서 현저한 經濟發展을 이룩하고 있었던 重要한 原因은 「헝가리」君主가 「폴란드」나 「루마니아」의 경우와는 달리 資本主義的 方式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事實에 緣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보아 過剩人口國에 있어 個別農家家族의 長을 封建的 企業家로 轉換시킴으로써 어떤 의미에 있어 새로운 封建的 方式을 定立시키는 農地改革政策은 바로 이러한 論理에 合致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方向設定이라고 결론짓고 過剩人口國의 農地改革政策에 대한 理論的 根據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小農主義理論은 그들의 놀라운 直觀的 認識에도 불구하고 一定한 資源을 가지고 極大生産을 얻기 위해서는 生産單位가 適正規模로 되어야한다는 하나의 重要한 側面을 看過해버렸다고 그는 批判한다.⁽¹⁹⁾ 즉 “個別農家家族의 保有”라는 原理는 自然히 生産單位의 適正規模未達을 結果하였으며 이것은 通常의 要素比率 및 可用技術과 兩立할 수 있는 가장 能率的인 形態로의 現存資本의 具體化를 阻害한다는 점을 Georgescu-Roegen은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北美型의 大規模이며 高度로 機械化된 農場形態는 過剩人口下에 있어서의 適正規模보다 훨씬 大規模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勞動을 非能率的으로 使用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妥當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는, 小農主義者들이 貧弱한 理論家들이기는 하지만 過剩人口經濟에서 勞動을 그 限界生産力이 0으로 되는 점까지 사용함으로써 어떤 生産要素도 不必要하게 遊休되어서는 안된다는 經濟發展의 가장 初步的인 原理를 忘却치 않음으로써 基本的으로는 올바른 立場에 서있는 사람들로써 規定하고 있다.⁽²⁰⁾

마지막으로 Georgescu-Roegen은 經濟發展은 순전한 經濟成長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成長誘發的인 過程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成長持續力은 後進國에 있어 唯一하게 妥當한 投資基準으로 되는 것이지만 限界生産力原理는 이 基準을 아주 貧弱하게 밖에 反映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現實的으로는 工業化初期局面의 西歐

(18) *Ibid.*, p. 392.

(19) *Ibid.*, p. 394.

(20) *Ibid.*, p. 394.

와는 對照的으로 오늘날의 過剩人口諸國의 都市는 農村人口의 大量的인 流入으로 病的인 規模로까지 成長되어 無用한 餘暇보다는 雇傭을 찾는 사람들의 社會的 壓力이 언제나 澎湃해있어 企業家중 아무리 確信있는 “限界主義者”라 할지라도 그의 規範에 따라 雇傭해야 할 것보다 많은 勞動을 雇傭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이러한 環境속에서 支配的인 生産要素價格은 限界生産力이외의 다른 것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投資의 限界生産力을 土臺로 한 投資基準의 援用은 사실상 年센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先進經濟의 發展過程이 過剩人口經濟에도 반드시 適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擴大解釋이며, …… 經濟發展에 있어 西歐가 거쳐왔던 經路는 落後된 地域의 發展을 위한 政策의 摸索에 있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을 提示해 줄 수는 없다”⁽²¹⁾는 政策的 提言을 結論으로 提示하고 있다.

V. Dandekar 의 問題提起

Dandekar 는 農業에 크게 依存하는 低開發諸國에 있어 經濟成長을 誘發 또는 加速化하는 諸力을 開放시키기 위한 方案중에서 農地改革이 優位를 점하고 있으며 日本·印度·「이라크」·「에집트」·「볼리비아」등 非共產諸國에 있어 農地改革은 個別農民保有權을 確立하려는 運動의 形態를 취해왔다는 사실에 注目하면서, 農業過剩人口의 條件아래서는 個別農民所有制度가 最善의 經濟政策이라는 Georgescu-Roegen 의 理論的 根據를 검토하고 그의 論議에서 不完全했던 점을 一步進展시키려는 데에 그의 論文의 目標을 설정하고 있다.⁽²²⁾

Dandekar 는 Georgescu-Roegen 의 分析의 核心으로 되는 過剩人口의 概念을 再吟味하는 데서 論議를 진전시킨다. 즉 Georgescu-Roegen 은 過剩人口를 完全雇傭상태아래서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勞動者의 最低生存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定義하며 그 가장 極端的인 형태로서 完全雇傭상태가 실현되기 전에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0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를 完全過剩人口(strictly overpopulation)라고 불렀다. 또 過剩人口國에 있어서의 經濟成長過程은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累進的으로 上昇하도록 (처음에는 0 이상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最低生存이상으로) 資本資源을 蓄積해가는 것과 一致하며 그것은 바로 過剩人口상태가 解消되어가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Dandekar 도, Georgescu-Roegen 과 비슷한 接近方法을 따라서, 過剩人口의 低開發經濟에

(21) *Ibid.*, p. 397.

(22) V.M. Dandekar, “Economic Theory and Agrarian Reform”. in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ed. by C. Eicher and L. Witt, McGraw Hill, 1964, p. 170.

있어서는 非農業部門은 資本制의 原理에 立脚하여 組織되기 때문에 生産에 대한 寄與가 받는 賃金보다 크지 않는 限 勞動者를 雇傭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의 全人口는 勞動의 限界生産力에 대한 考慮없이 모두 農業에 收容되는 것이며, 經濟成長문제의 일부로서의 農業(小農)문제는 農業에 收容된 人口의 一部가 非農業部門으로 점차 退出하기까지의 期間동안 農業部門生産을 極大化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有用하게 사용하는데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利潤極大化에 의하여 규제되는 經濟體制로서의 資本主義는 그 限界生産力이 支拂되는 賃金과 같은 點이외의 勞動에게는 雇傭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勞動力중의 一部는 失業으로 남게 될 것이며 또 이러한 社會的인 歸結과는 별도로 資本主義的 企業家의 利潤이 極大화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農業部門의 總生産을 極大化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資本主義體制는 過剩人口의 小農問題에 대한 經濟的 解決策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總生産의 極大化를 위해서는 全勞動力 또는 限界生産力이 0인 점까지의 勞動을 雇傭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資本主義는 이것을 가능케 할 制度的 構造를 마련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過剩人口를 지닌 低開發經濟의 農業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基本的으로 非資本制的인 制度的 機構가 摸索되어야 한다고 Dandekar는 推論한다. 한편으로 그는 封建制를 통하여 過剩人口國의 傳統的 農業은 그 限界生産力이 最低生存이하 또는 0까지 떨어지는 점이상으로 雇傭을 增大시킴으로써 總生産을 極大化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특징적인 制度를 發展시켜왔음을 是認한다. 즉 封建制下의 地主는 總生産物중 一定한 分配率로 報償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地代를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總生産이 極大化되어야 했던 것이므로 封建制는 總生産의 極大化를 위하여 必要한 機構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封建制가 資本主義的 諸制度和 緊密한 接觸을 갖게 되자 非農業部門의 資本主義的 經濟는 地主들에게 새로운 機會를 부여해주었으며 地主들이 傳統的 社會下에 있어서의 諸義務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不在地主制 엄청나게 비싼 地代 그리고 農業을 荒廢化시키는 갖가지 害惡이 생겨나게 되어 결국 封建制의 存續이 不可能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에 封建制는 農地改革을 통하여 個別小農保有制라는 새로운 原理로 代置되게 되었으며, 이 새로운 小農的 原理는 經濟理論의 見地에서 보면 家族勞動의 雇傭은 限界生産力의 考慮에 의해서가 아니라 總生産極大化의 考慮에 의하여 規制되는 것이기 때문에 家族勞動은 그 限界生産力이 0으로 되는 점까지 雇傭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過剩人口經濟의 農業 문제의 解決에 必要한 要求條件을 充足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Georgescu-Roegen과 結

論을 같이하고 있다. ⁽²³⁾

VI. Dandekar 의 Georgescu-Roegen 에 대한 批判的 展開

위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Dandekar 는 過剩人口經濟에 있어서 農業部門은 資本制的 企業과는 別個의 다른 原理위에서 組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Georgescu-Roegen 과 같은 結論에 到達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小農保有的 原理는 그 保有的 上限내에서 만족할 수 없는 能力과 企業을 早晚間 農業部門으로부터 떠나게 만듦으로써 農業部門이 累進적으로 衰退되며 政治적으로 弱화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小農保有的 原理는 總生産極大化를 위하여 어느 집까지만 機能할 수 있을 뿐 急速한 成長을 위한 重要的 諸條件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는 小農保有原理의 限界에 대하여 注意를 喚起시키고 있다. ⁽²⁴⁾ 즉 生産單位의 適正規模문제를 들면서 個別家族保有的 平等이 總生産의 極大化를 위한 經濟原理에 비추어 볼 때는 正當化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總生産極大化문제에 小農保有原理와 마찬가지로 관련을 갖는 다른 考慮들은 個別家族保有的 平等이라는 原理에 反하게 된다는 점을 指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가지의 技術的인 考慮때문에 農業에 있어서도 주어진 量의 資源으로부터 極大生産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生産單位는 適正規模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過剩人口狀態下에 있어서의 個別小農家族의 保有原理에 따른 平等保有的 生産單位의 適正規模를 가져오지 못하고 農業의 全生産單位를 適正以下에 두게 될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물론 Georgescu-Roegen 도 小農保有的 原理가 지니는 이 缺陷을 認識하고 “그것은 生産單位의 適正以下規模를 빚어내며,” 또 “現存資本이 現存의 要素比率 및 可用技術과 兩立할 수 있는 가장 能率의인 形態로 具體化되는 것을 沮害한다”고 論及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또한 “그렇다고 하여 北美型의 大規模이며 高度로 機械化된 農場에 贊意를 표하는 「스탈린」主義政府의 偏見을 正當化할 수는 없다. 이 偏見은 正反對의 方向으로 그릇된 것이니 그것은 過剩人口와 兩立할 수 있는 適正보다 훨씬 큰 規模를 결과함으로써 勞動을 非能率의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指摘하고 있다.

Dandekar 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個別小農保有原理의 缺陷에 대한 認識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Georgescu-Roegen 에 있어서 看過되고 있는 個別小農保有가 適正生産單位를 確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임을 提起함으로써 Georgescu-

(23) *Ibid.*, p. 173.

(24) *Ibid.*, p. 173.

Roegen의 論議를 批判的으로 發展시키고 있다. Dandekar는 종래에도 小農的農業에 있어서의 生産單位의 規模문제가 제기되어왔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그러한 論議는 極大生産의 實現이라는 觀點에서가 아니라 小農의 立場에서 最少限의 또는 所望되는 또는 適正한 家族所得을 부여해준다는 觀點에서 제기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論議의 出發點이 그릇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⁵⁾ 즉 종래에 있어 小農保有가 하나의 能率的인 生産單位로 理解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 能率は 限界生産力原理에 따르는 資本制의 企業과 같은 基準에서 判斷되어 왔으며 예컨대 小農保有의 上限이 때때로 論爭點으로 되는 것은 生産單位의 規模문제에 관한 그러한 類의 理解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生産單位의 適正規模가 그러한 原理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그것은 生産을 極大化시키기 위해 勞動資源의 極大量이 利用되어야 한다는 當初의 要請을 充足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適正保有規模의 그러한 決定의 결과는 過剩人口상태아래서 모든 小農家族들이 適正保有規模를 가질 수는 없고 大量의 無產農業勞動者를 創出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小農保有의 適正規模문제는 個別小農保有者의 立場에서 提起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總生産을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모든 可用資源이 利用되어야 하며 특히 過剩人口國에 관해서는 모든 勞動資源 또는 적어도 勞動資源중 極大量이 利用되어야 한다는 基本的 原理위에 立脚할 때, 農業에 있어서의 土地量과 扶養해야 할 人口의 數가 주어진다면 個別小農의 保有規模는 自動的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적어도 平等한 家族保有의 原理위에서는 限 그밖에 별다른 改善의 餘地가 없다는 점을 明白히 인식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生産規模의 適正문제를 論議할 때 우리는 그점에 관해서는 選擇의 餘地가 없으므로 한 個人의 保有를 보다 적게 할 것인가 또는 보다 크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 보다는 平等한 小農保有가 生産單位로서 個別的으로 運營되어야 할 것인가 또는 그들을 共同으로 經營하는 것이 有利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共同單位의 크기가 얼마만큼한 것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²⁶⁾라고 規定한다.

이와같은 論議를 통하여 Dandekar는 個別小農保有의 原理위에서 生産單位의 適正規模를 이룩하는 方式은 “어떤 形態의 協同의 共同生産單位로의 統合”⁽²⁷⁾에 依存하는 길 밖에 없다고 推論하고 그러한 例로서 「멕시코」農地改革의 初期段階나 최근 「이락」의 農地改革은

(25) *Ibid.*, p. 176.

(26) *Ibid.*, p. 177.

(27) *Ibid.*, p. 178.

平等한 個別小農의 保有를 창설했다가 바로 協同生産單位の 形態로 合併시킨 事例를 들고 있다. 그러나 흔히 일어나는 事態는 過剩人口狀態아래서 個別小農保有原理의 주된 利點은 勞動이 그 限界生産力에 대한 考慮없이 雇傭될 수 있는 條件을 마련해 준다는 점과 協同의 經濟的基礎와 意味는 適正生産單位の 確保에 있다는 점을 올바르게 認識하지 못함으로써 協同化過程에서 무엇이 상실되는가를 올바르게 把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 注意를 喚起시키고 있다.⁽²⁸⁾ 즉 흔히 個別小農保有가 協同生産의 形態로 들어가면 協同農場에 있어서의 雇傭條件은 限界生産力の 考慮에 의하여 規制되기 때문에 協同組合構成員의 家族勞動까지도 限界生産력과 最低生存賃金이 均等한 積이의의 勞動은 雇傭될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協同組織은 그것이 없었더라면 僞裝된 自己雇傭形態로 나타났을 失業을 表面에 露出시키므로써 사실상 雇傭을 줄이는 결과를 招來하게 된다. 그 주된 理由는 協同農場의 管理者는 그 訓練이나 背景으로 보아 資本制의 企業家인 것이 보통이며, 또 그는 非農業部門이 資本制의 原理에 따라 움직이는 經濟內에서 活動하므로 그의 管理는 資本制의 企業에서와 똑같이 能率이라는 基準에 따라 判斷되기 때문에 個別小農保有의 協同組織은 보통 雇傭極大化라는 目的에는 符合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資本制의 基準에 따라 運用되는 協同組織이 갖는 制約性을 強調하면서, 個別小農保有를 어떠한 形態의 協同의 共同生産單位로 統合하는 이외에 生産單位의 適正規模를 이룩하는 다른 方式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同時에 考慮에 넣는다면, 極大生産을 얻기 위하여 이때의 協同農場은 基本的으로 封建的인 것이어야지 資本制의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結論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서 過剩人口下의 小農經濟를 能率의으로 擔當할 수 있는 封建的 形態의 協同組織은 營利企業보다는 家計와 類似한 것이어야 하지만, 이를 위하여 協同組織의 構成員이 家族成員과 같이 行動토록 하는데 일어나는 難點을 認定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單純한 勸告이상으로 共同規律에 同意토록 하는 方策이 必要할 것이라고 附言하고 있다.

Dandekar 는 小農保有의 統合을 통한 共同生産組織의 利點을 適正生産單位規模의 確保뿐 아니라 資本形成事業(capital works)을 可能케 한다는 점에서도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過剩人口상태란 完全雇傭下에서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0 또는 그 이하인 상태를 意味하는 것이므로 분명히 全勞動이 日常的 生産(current production)에 利用될 수는 없으며 그 一部는 資本形成事業 즉 資本을 助成하는 事業에 使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小農保有制

(28) *Ibid.*, p. 177.

아래서는 이러한 過剩勞動力은 自己雇傭으로 僞裝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共同生産單位는 이러한 失業勞動力資源을 利用하여 어떤 종류의 資本形成事業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共同生産單位의 優越性이 놓여있다는 것이다.⁽²⁹⁾ 따라서 이때의 生産單位의 適正規模는 전적으로 日常的인 農業生産에 대한 考慮 및 技術에 의하여만 결정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資本形成事業을 摸索하고 企劃하며 執行할 必要性에 의해서도 決定되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Dandekar 는 그가 提示한 協同生産組織의 性格에 대하여 한층 詳細한 叙述을 添加하고 있다. 즉 보통 이해되는 바와 같은 個別小農保有의 協同組織은 그 構成員으로 하여금 그의 全能力껏 일하도록 強制할 수 있는 條件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따라서 그 目的을 위해서는 協同精神이상의 어떤 것이 所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個別小農保有 또는 막연히 協同組合이라고 불리우는 類似한 組織으로써는 過剩人口下의 小農문제에 대한 解決策을 마련해 주지 못하며, 그 解決策은 理論的으로는 封建的이고 技術的으로는 近代의 大單位의 土地 및 人口로 小農을 組織化하는데서 發見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⁰⁾ 또 여기에 있어서는 基本的인 生産單位가 大規模이어야 할 것이므로 그 内部에 있어서의 人間과 土地와의 關係는 不可避하게 個別小農保有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多少 遊離된 것이어야 하며 실제에 있어 土地의 個別的 所有에 관련된 利害關係로 인한 農業内部의 攪亂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限 既存狀態이상으로 土地에 대한 個人的 權利의 새로운 創設을 抑制하는 政策을 써야 한다는 政策의提言을 하고 있다.

이러한 論議를 통하여 Dandekar 가 도달한 결론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즉 “個別小農保有는 形態的으로는 封建的이기 때문에 過剩人口下의 條件에 어느 정도 副應하는 것이지만 經濟成長을 위한 몇가지의 要求條件을 充足시키지 못한다. 또 小農保有의 原理가 平等主義와 結付되어 個別保有에 上限을 設定할 때는 그것은 農業部門의 發展을 抑壓하고 그것을 政治的으로 脆弱케 만든다. 따라서 過剩人口下의 小農의 農業은 資本制의 原理에 의해서가 아니라 集團善을 위하여 運營되는 大規模의 生産單位를 구성하는 機構를 필요로 한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資本主義도 社會主義도 아니라는 二重의 否定을 含蓄하는 個別小農保有 및 家內工業의 小農理論에 관한 Georgescu-Roegen 의 勸告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기는 곤란하다”.⁽³¹⁾

(29) *Ibid.*, p. 178.

(30) *Ibid.*, p. 179.

(31) *Ibid.*, p. 180.

VII. 結 語

위에서 우리는 過剩人口의 低開發小農經濟의 經濟發展을 위하여 理論的인 次元에서 個別小農保有가 어떠한 役割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그 限界는 어디에 있는가 또 이것은 어떠한 修正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룬 두개의 論議를 검토해왔다.

요컨대 두 論議의 共通된 結論은 過剩人口상태에 놓여있는 小農的 後進國이 經濟發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資源을 總生産의 極大化를 위하여 利用할 수 있는 能率的인 構造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限界生産力이 支給되는 賃金보다 높은 勞動力만이 雇傭될 수 있는 資本制的 機構는 적어도 過剩人口經濟에 관해서는 不適合하며, 限界生産力이 0 이상인 모든 勞動資源을 利用할 수 있는 機構가 優越性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經濟行爲의 原理에 充實하기 위해서는 家族勞動을 中心으로 하는 個別小農保有制度가 보다 適切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技術的인 側面에서 農業生産에 있어서도 같은 量의 資源으로써 極大生産을 追求하기 위해서는 生産單位의 適正規模를 確保하는 것이 必要한 일이며 따라서 單純한 個別小農保有의 原理는 小農保有原理가 지니는 바 利點을 살피면서 어떠한 形態로든 이러한 技術的인 考慮를 充足시키는 方向으로의 修正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Dandekar는 Georgescu-Roegen이 이미 到達한 이러한 結論을 首肯하면서 그가 未盡했던 生産單位의 適正規模를 確保하는 方案에 대하여 한층 具體的인 論議를 전개하였다. 그는 個別小農保有原理가 지니는 바 利點인 勞動의 極大利用을 實現하면서 適正規模의 生産單位를 확보하는 길은 어떤 種類의 協同的 共同生産組織이외에 다른 方途가 없다는 結論으로 發展시키며, 이 共同生産單位도 흔히 보는 바와 같은 資本制的 經營의 原理위에 선다면 그것은 當初의 命題인 모든 資源 특히 勞動의 極大利用을 통한 總生産의 極大化에 失敗할 것이므로 그 協同組織은 本質的으로 營利企業보다는 家計와 類似的한 것이어야 하며 集團善을 위하여 運營되는 多少의 強制性을 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Dandekar의 結論은 印度라는 社會의 經濟體制를 背景으로 하여 導出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면 이러한 論議들은 역시 過剩人口의 小農經濟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經濟發展을 위한 農業問題에 대하여 어떠한 示唆을 주는가? 理論的으로 볼 때 長期에 있어서는 非農業部門의 經濟發展과 雇傭機會의 擴大에 따라 過剩人口는 점차 解消되어 갈 것이며 勞動의 限界生産力은 높아져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經濟發展을 推進시켜나가는 過程에 있어서의 農業의 任務는 農業自體로서 보다 많은 總生産을 達成함으로써 增大해가

는 農產物需要에 副應하며, 非農業部門의 擴大에 따라 所要되는 勞動力을 圓滑히 供給해 줄 수 있는 機構를 마련해가는데 있을 것이다.

資本主義的 經濟發展過程에 있어 終局的으로는 農業도 資本制의 原理에 따라 組織되어 가는 運動을 계속할 것이지만 勞働의 極大利用을 통한 總生産의 極大化와 동시에 生産單位의 適正規模를 통한 規模의 經濟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個別小農保有的 原理를 바탕으로 한 協同的 共同生産單位의 形成을 摸索하는 것은 過剩人口國에 있어서 資本主義的 農業發展을 促進시키는 하나의 有用한 過渡的인 段階로서의 意義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共同生産單位의 形成은 非農業部門의 雇傭機會不足으로 인해 資本制的 農企業아 래서 遊休될 勞動力을 能率的으로 利用하는 方案이 될 뿐 아니라 規模의 經濟를 살림으로써 農業生産力의 發展을 促進시키는 方案으로 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共同生産單位가 資本主義經濟의 틀안에서 組織되는 限 그것은 終局的으로는 資本主義經濟의 運動法則에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보다 有利한 雇傭機會가 充分히 創出되어 非農業部門으로 過剩人口가 吸收되어 農業部門에 있어 資本制的 企業이 成立할 수 있는 素地가 마련되는 段階에 가서는 資本制的 農企業制度에 立脚한 農業으로 變質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農業發展의 길이 바로 過剩人口國의 農業에 있어서의 資本主義의 成立과 發展을 能率的으로 그리고 摩擦과 犧牲을 줄이면서 이룩할 수 있는 方途로 될 것이다.

〔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補助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教 〕